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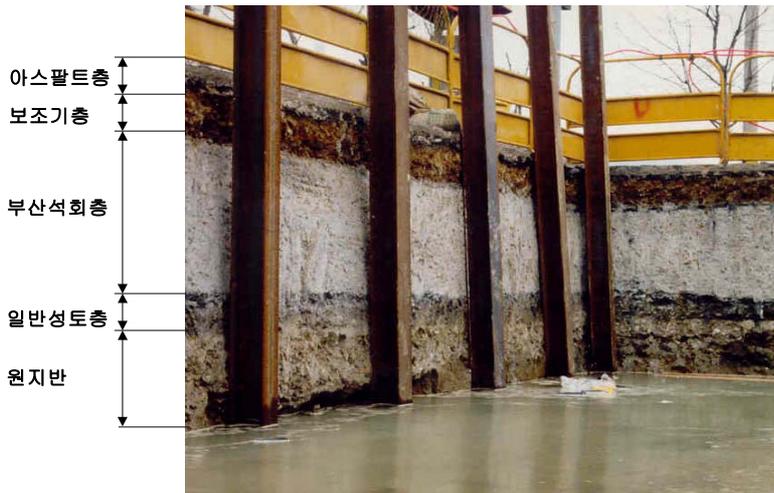
석회석 부산물 “건설재료로 재이용”

화학적 처리로 강도·내구성 증가 ... 부산물 320만톤 중 15%만 재활용

소다회, 생석회 등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회 찌꺼기를 재활용해 일반 도로 구조물의 기초공사나 대규모 건축물 공사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.

한국건설기술연구원(원장 이승우)은 석회 잔류물(부산석회)과 흙 입자에 화학적 처리를 가해 흙의 가소성

석회 잔류물을 도로 성토재료로 활용한 사례



(Plasticity), 작업성을 개량하고 강도 및 내구성을 증가시켜 건설재료로 재활용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.

석회 잔류물 재활용 기술은 한해 500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, 건설 폐기물 절감, 환경문제 개선,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건설재료의 원활한 수급 등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.

석회석, 백암, 폐각 등을 물리·화학적으로 가공·처리해 생석회, 소석회, 탄산석회, 소다회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회석 잔류물은 2003년

약 320만톤이 발생했으나 이중 14.7%인 47톤만이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됐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2/18>